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7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無常心 (36X36-Acrylic on Canvas)

• 저에게 이승에서의 가장 큰 행운은  
 사람 구실하며 살라는 불교의 만남  
 이었고, 그 길에서 법정 같은 큰 스승  
 을 만나 30년을 모실 수 있었던 대복  
 의 인연이었습니다. 이따금 스님을 뵈  
 고자 조계산과 불일암에 올랐을 때  
 내게 수많은 화상(畵想)을 주었던 그  
 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불일암 추억을  
 따라가 봅니다.

고 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7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파멸의 문
처음 마음으로	12	인격의 향기 - 향내나는 사람이 되자
꽃은 흠에서 핀다	19	꽃피는 산골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3	공감대화의 습(習)
아름다운 마무리	26	4월 결연 대상자 - 김철수(기명)
古典을 읽다	28	그리스인 조르바
따뜻한 이야기	32	수탉과 독수리
	34	일요특강 - 나의 삶 나의 길
알립니다	35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36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경전에서 배우는 지혜	38	왕위를 사양하는 형제
시심청심	42	떠나가는 꽃망울의 설레임
맑고 향기롭게 소식	43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65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파멸의 문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글·법 정(法 頂)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슈라바스티  
[舍衛城]의 제타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祇樹  
給孤獨園,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아름다운 한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 숲을 두루 비추면서 스승께 가  
까이 다가왔다.

스승께 예배 드린 후 한쪽에 서서 시로써  
호소했다.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타마(부처님)께 여쭙어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아무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교의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늘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바라문은 정행(淨行, 범지梵志라고도 번역한  
다. 고대인도 사회에서 제1계급인 바라문교  
의 사제司祭. 그들은 <베다>성전을 신봉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를 지낸다. 사문  
은 바라문 이외의 수행승인데, 그들은 <베다  
>성전을 신봉하지 않았다. 이 바라문과 사문  
이 그 당시 종교계의 대표적인 그룹이었다.  
주석서에 따르면, 수행자들에게 “무엇이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라고 해  
필요한 것을 말하게 한 다음, 그것을 주지 않  
으면 속이는 일이 된다고 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만 독차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문벌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 번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때를 지난 남자가  
틴발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 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 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두 번째 것을 말씀해주세요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크샤트리야[武士]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는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피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 강론 -

분수에 맞는 내 인생의 몫

집을 비우고 열흘 가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니 녹음이 짙어 있다. 그새 모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작약이 꽃망울을 부풀리고 있다. 후박나무 그늘 아래 통나무 의자를 하나 옮겨다놓았다. 그 위에 걸터앉아 앞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은은한 후박꽃 향기도 좋으려니와 투명한 초록의 나무들이 아주 정답게 느껴진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최루탄 때문에 눈물과 콧물과 재채기로 얼룩진 내 숨결이 숲 향기로 이내 다시 맑혀지는 것이다.

5월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들 하지만, 이 근래에 와서(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5.16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이 땅에서는 그런 5월이 사라져버렸다. 정치 권력에 맞들인 군인들이 저지른 그 무자비한 살육이 눈부신 5월을 우리한테서 앗아가 버린 것이다. 신록의 향기 대신 최루탄 가스가 전 국토를 더럽히고 있는 실

정이다. 이 땅에 언제 다시 5월이 계절의 여왕으로 복귀할 것인가.

“크사트리아(군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우리 현실에 아주 적절한 교훈이다.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 군인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요즘의 유행어를 따른다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정치 권력을 노려 최고 통치권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파멸의 길이라는 말씀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뒤끝이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개인도 파멸의 문으로 들어갔고, 국가 또한 통치자를 잘못 만나 그만한 피해와 손실을 입은 것이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의 영역을 침해해가면서 욕심을 부린다

면, 자신도 해치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전 문직을 익히고 그 길에 한평생 종사하는 것도, 그런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파멸의 장'을 읽어보면 한결 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경전의 이름 아래 어찌해서 이런 범속한 일들이 스승의 교훈으로 다루어졌을까. 상식적이고 당연한 보편적인 이런 생활 규범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윤리요 도덕이 아니겠는가. 이런 보편적인 생활 규범을 떠난다면 그때는 비인간의 길, 즉 파멸의 문으로 떨어지고 만다.

상식은 일단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상식에만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그 집착의 늪에서 뛰쳐나오라고 눈뜬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다.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פר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 일을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문득 '성 베네딕도의 수도 규칙'이 떠오른다. 베네딕도는 5세기 이탈리아에서 서양 최초의 수도원을 개설한 분이다. 그의 수도 규칙은 서방 교회에서 최초의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수도생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8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그쪽 수도생활을 지배해다시피 했다. 그의 규칙은 지나친 엄격성을 피하고 분별력과 중용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의 '수도 규칙' 제31장을 보면, '수도원의 경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도원의 경리는 형제들 중에서

지혜롭고, 성품이 완숙하며, 절제 있고, 많이 먹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으며, 욕을 하지 않고, 동작이 느리지 않으며, 낭비벽이 없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전체 공동체를 아버지처럼 돌볼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중략).”

절 소임에 견준다면 재무나 회계 또는 원주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대중의 재산이나 급식 등 살림살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대식가이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대식가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자기 뭇만이 아니고 남의 뭇까지도 가로채서 꿀꺽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돈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그 집안은 언젠가 거덜이나고 말 거라는 경고다. 지당한 말씀.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어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물질적인 부

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웃과 나누어 쓸 줄 모르고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거라는 교훈이다.

생사 윤회의 원인은 탐욕에 있다고 경전마다 한결같이 말한다. 탐욕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신밖에 모르는 단란 마음이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움짱 못하는 갇힌 마음이다.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음이 틈어야 개체인 내가 전체인 나로 비약할 수 있다는 소리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란 원천적으로 내 것일 수 없다. 법계法界의 선물을 그 어떤 인연(경로)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관리인으로서 운영 관리를 제대로 잘한다면 그 관리의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그 법계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착각해 잘못 쓰거나 묵혀둔다면 당장 회수 당하고 만다. 이런 도리가 바로 법계의 소식이요, 우주 질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바로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항상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익히고 배우는 뜻은, 그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내 자신을 읽으라는 소식이다. 교훈의 거울에 발가벗은 자신을 비추어봄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움직임이다.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는 것은, 밖으로만 팔리던 눈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다.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그 눈길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법계의 소식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전을 읽을 때의 상황과 심경을 경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경전을 읽고 오늘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배워보고자, 2017년 한 해 동안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기획 연재합니다.

### 부처님 오신날 '무소유 장터' 소장품 기부 및 참여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5월 3일(수) 부처님오신날 길상사 뜨락에서 녹색나눔장터의 일환으로 특별한 '무소유 장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회원님과 신도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소장품(애장품, 불교물품 등)을 후원해 주시거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여 수익금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길상사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장터를 진행하려 합니다. 옛부터 전통사찰에서는 생활물품을 구하고 사찰에서 생산한 다양한 물품을 교환·유통시켜온 산중장터인 승시(僧市)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스스로 무소유를 실천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인격의 향기

- 향내나는 사람이 되자

글·덕 일(德日)

지난 2월 22일 수요일에 법정스님 7주기 추모법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법회를 원만하게 잘 회향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길상사 신행단체분들께서 맑은 바 소임을 잘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눈이 소복하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은사스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안면이 있는 보살님께서 맑을 뽀뽀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해서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드님께서 경기도 일산 부대로 입대를 하게 되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를 부처님께 발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인터넷으로 오리들이 알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 대해 소개한 자연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리들이 오리알을 깔 때가 되면 강가에서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알을 깬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알을 까게 되면 거북이나 뱀 등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게 되면 물을 먹여야 합니다. 오

리새끼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부모오리가 자기 새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수백 킬로 떨어진 강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가면 물오리를 노리는 독수리, 수리부엉이, 기타 여러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제 새끼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수백 킬로를 날아와서 물을 가슴팍에 꼭 적십니다. 그렇게 가슴팍에 강물을 꼭 적셔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끼들한테 돌아와 가슴팍에 묻혀왔던 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를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성(母性)이란 무엇일까? 또 자녀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과연 죽어서도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일까? 그 때문에 자식은 죽어서도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의미심장한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추모법회 때 은사스님을 설법전스크린 영상을 통해서 봐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옛그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셨는데, 열반에 드신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잠시 동안 이였지만, 막내 상좌로써 눈물이 났습니다. 영상법문에서 ‘맑은 가난과 ‘소욕지족, ‘무소유’ 사상을 잠시나마 설파해 주셨는데, 맑은 가난이라는 것,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맑은 가난!

지난 2월 중순 경에 영국 인디펜던트라는 일간지에 ‘맑은 가난’과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무 살쯤 되는 아가씨가 몇 년 전에 16억4천만 원 정도 되는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아가씨 나이가 17세 때 이야기인데, 17세

때 16억 원 정도 되는 많은 돈이 생기니 정신없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쇼핑도 하고 자동차도 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형수술도 하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과소비를 한 것에 대해 진력이 납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10년, 20년 안에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막상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마구 써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유럽의 로또 업체인 캐멜렛사의 대표를 과실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로또가 자신의 인생을 파멸하게 만들었다.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16세부터 복권을 살 수 있는데, 그 아가씨가 무슨 조건을 내세웠느냐면, ‘복권을 살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높이자, 너무 어린 나이에 복권에 당첨되니 인생

이 파멸해지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형제들마저도 나를 가깝게 하려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한 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소감을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령층을 높여서 로또를 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법적으로 제소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복권회사 쪽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보내 조언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돈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긴 상황인데 전문가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복권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찾아온 엄마를 안 보려고 문을 잠가버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0명중에 6명 정도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유편 때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난다라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느 날엔가 제가 나무 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해보니 향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향기라는 것은 나무뿌리에서도 나고, 줄기에서도 나고, 꽃에서도 나오는데, 그 향기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역행해서 날릴 수 있는 향기가 있습니까?’

아난다 존자가 하는 얘기를 요약하자면 ‘향기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을 거스를 수 있는 향기가 있는가? 또한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불지 않거나 풍기는 향기가 있는가?’ 그렇게 부처님께 여쭙어본 것입니다. 그래

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살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또한 거짓말하지 않고, 음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성취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바 진정한 법을 성취한 것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殺), 투(偷), 음(淫), 망(妄), 음(飮)입니다.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주를 하지 말라.

살(殺), 투(偷), 음(淫), 망(妄), 음(飮)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으니, 음주하지 말라는 정제는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마시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법을 성취한 사람은 바람



이 부는 쪽으로만 향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바람이 있으나 없으나 고요한 상태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교를 바르게 믿고 수행하면 다섯 가지 향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오분향(五分香)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매일 예불을 올리면서 이 다섯 가지 향기 나는 몸을 성취하여 온누리를 마침내 향기로 가득 채울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녁예불을 “오분향례(五分香禮)”라고 합니다.

오분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향(戒香)입니다. 계향이란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는데서 생깁니다. 둘째는 정향(定香)입니다. 계향이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향기입니다.

셋째는 혜향(慧香)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듯 지혜의 빛이 빛나는 향기입니다. 넷째는 해탈향(解脫香)입니다. 참다운 지혜로 해탈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다섯째는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입니다. 해탈지견향이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시 이웃에게도 그 경지를 가르쳐주는 향기입니다.

이런 향기를 온몸에 가득 지난 사람을 불교에서는 성자(聖者)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옆에만 가도 훈훈해지고 편안해지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고승대덕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닌 향기는 꽃향기와는 달리 바람을 거슬러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정말 수줍은 달처럼 자신을 낮추셔야 하고, 진정한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분향(五分香)을 통해서 살(殺), 투(偷), 음(淫), 망(妄), 음(飲), 살생을 금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음행하고 싶은 생각을 없애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음주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맑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분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분향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진정한 인간의 향기를 알 수 있게끔, 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있고 어느 누구를 대면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시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초하루법회에만 기도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관세음을 염하시던지 약사여래

불을 염하시던지 아니면 아미타불을 염하시면서, 어떤 불보살님 한분을 내 몸의 분신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기도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나무들 사이에 목불과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이 된 나무가 보기에 똑같이 나무로 된 목불은 상단에 앉아계시고 자기는 똑같은 나무인데 계단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계단의 나무가 앉아계시는 목불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했기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사만 받고 맛있는 건 다 그렇게 드시느냐? 나는 도대체 무슨 업이 있기에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밟고 어쩔 때는 신발도 털고 어떨 때는 침도 뵈고 도대체 밟혀서 못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오. 나는 여기에 앉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칼질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칼질이란 불공의 조각칼이기

도 하지만,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수많은 업을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오백생을 두고 선업을 지어서 부처님이 되었듯이, 그 목불도 그 산과 바다 같은 업을 한꺼풀 한꺼풀 칼을 맞는 심정으로 그렇게 견뎌왔기에 그렇게 부처가 되어 상단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살(殺), 투(偷), 음(淫), 망(妄), 음(飲)이나 오분향(五分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에 의하면 현생이나 다음 생이나 마찬가지로 결과가 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사람과 행복으로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칼을 맞고 오백생에 걸쳐 선업을 짓는 부처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짓밟히고 신발을 털고 밟고 압력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계단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오늘 초하루법회의 주제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향내 나는 사람이 되자. 향이 나는 사람이 돼서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이웃들, 더 나아가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이 마음을 오분향(五分香), 오분법신(五分法身)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어찌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겠습니까?

봄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소에서 나오는데, 검은 고양이가 봄을 섭취하려고 그러는지 담벼락 위에서 할 일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봄벌레 몸을 맡기고 담벼락 위에서 햇살을 느끼고 봄을 느끼듯이, 여러분도 고요한 몸과 마음으로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가득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십시오!

-불기 2561년 음력 2월 1일 초하루 법문  
(2017년 2월 26일)

## 꽃피는 산골

글 • 김기철(도예가)

간밤에 천둥 번개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더니 아침엔 언제 그랬나 싶게 대지는 방금 목욕을 하고 난 것 같고 하늘은 더 없이 청명했다. 따라서 나의 아침산책의 발걸음은 전에 없이 가벼웠다. 매화를 비롯해 진달래, 목련 같은 꽃들이 선발대로 피고 뒤따라 산벚꽃, 복사꽃 따위가 눈이 부시게 산골을 치장하고 있었다. 산새들은 장단을 맞추듯 지저귀고 멧대거리 없는 나 같은 사람 입에서도 콧노래가 저절로 새어 나왔다. 세상 살아가는 맛이 바로 이런 것인가 감탄을 해대면서 연신 두리번거리며 골짜기로 기어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놈이 이제 막 새순과 더불어 꽃을 피

우려는 금낭화 포기를 송두리째 뽑아 버린 게 아닌가! 내 대에는 옛날 고향의 꽃동산을 만든다고 기회 닿을 때마다 나무며 꽃을 갖다 심었다. 금낭화도 세 포기를 심었는데 한 포기는 일찌감치 누가 캐가고, 다행히 위쪽의 두 포기가 소담스레 줄기가 불어나 볼 만했다.

나는 내심 금낭화 경연대회가 있으면 우리 것이 단연 금상감이라고 자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데 무슨 심보로 캐다 말고 심지를 잡아 뜯어 내팽개쳐 놓았으니 어찌 봐야 할지 모르겠다. 꽃이라도 싱싱하고 예쁘니까 심통이 나서 해코지를 한 건지 누군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골탕을 먹이려고



한 건지 별 생각이 다 났다. 나의 날아갈 듯한 기분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런 기분은 아무리 좋은 쪽으로 돌리려 해도 며칠씩은 끌고 간다.

하긴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울타리 없이 울안을 가꾸고 뒷동산 골짜기를 ‘꽃피는 산골’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옛날 고향에서 보던 과일나무며 화초를 키우며, 거기다 먹을 수 있는 두릅, 도라지, 더덕, 취 같은 나물뿐만 아니라 패랭이, 나리, 범부채, 매발톱, 꽃창포 등등 구색을 갖추려고 했고 더구나 자생하는 둥굴레, 잔대, 으아리, 타래난초 따위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물들이 하룻밤 자

고 올라가 보면 송두리째 패여 나간 것이었다. 마치 도굴꾼에 의해 파헤쳐진 무덤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작년 봄엔 울안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고 있던 할미꽃 포기가 뿌리는 오간 데 없고 줄기만 그 자리에 널부러져 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럴 때마다 울화가 터졌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한갓진 시골 한구석에서 좋아하는 꽃이나 키우며 맘 편하게 살겠다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다.

봄가을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울안에 들어와 나물을 뜯는 사람들이었다. 배낭을 걸머진 나물꾼들은 막무가내로 나가질 않는다. 어떤 이들은 도리어 눈을 부라리면서 당신네가 심어 놓은 것이냐고 대든다. 달래, 냉이도 못 뜯게 하는 야박한 인심이 어디 있는냐고 따진다. 또 가을이면 도토리, 밤 줍는 이들의 침입이 극성이다.

정말 이 짓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었다. 뜯어 먹겠다는 놈과 뜯기지 않겠다는 쪽이 서로 맞물려 살아가는 세상이고 보니 덩치가 있으면 적당히 뜯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했다. 그리고 보니 이런 것으로 누리는 대가를 치르나 보다고 아예 단념해 버리는 습성이 생긴 것 같다.

나는 ‘꽃 피는 산골’이라고 부르는 가마 뒤 산골을 옛날 고향 뒷동산같이 꾸미고 싶어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듯 우리 토종 꽃나무며 야생식물을 틔우는 대로 갖다 심고 위안을 받고자 했던만 그계 뜻대로 되지 않아 수시로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래도 골짜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개미가 물어 나르듯 갖다 심고 가꾼 것들이 제법 어우러져 꽃피는 골짜기를 늙은 쥐 찬광 드나들 듯 한다.

나에게 그 자리는 어릴 적 엄마의 품속 같은 곳이며, 고향이 사라지고 만 지금에 와서는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고향인 것이다. 이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 그곳이 없다면 나의 심신이 쪼그라들지 않고 이만큼 편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세상사 힘들고 답답할 때 나에게겐 위안처가 돼 주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구역질나고 속이 터질 때 남에게 터무니없이 경멸을 당하고 나 못난 현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곳은 나에게 만만한 무른 땅 노릇을 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성한 기도처가 돼 주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청정한 공간이 돼 주는 것이다. 언제고 찾아들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 속에 서식하는 이름 모를 곤충이나 허찮은 풀꽃 하나 까지도 말을 걸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참으로 귀엽고 귀

한 생명체들이 오순도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무섭게 바빠 돌아간다. 이곳 또한 평화롭던 산천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파헤쳐지고 있다. 어찌 그리 우악스럽고 인정사정없이 잔잔하던 고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지, 과연 이런 세상이 얼마나 지속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꽃 피는 산골’은 더욱 나에게 소중한 곳이다. 코앞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아직은 자연의 원형을 지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른한 팔다리와 기분으

로 걷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내려올 때는 어느새 가쁜한 몸과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는 이곳을 거창하게 꾸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비어 있는 공간에 돌탑이나 돌담을 쌓아 그 옛날 가난하던 고향 뒷동산을 흉내 내고 싶다. 적어도 내가 여가서 농사를 지으며 도자기를 하는 한 찾아오는 손님들의 안식처가 되어 마음껏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 제발 이곳만은 파괴되지 않고 언제까지도 신선한 자연으로 남아 있게 되기를 빌고 또 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가 모집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따라 더욱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전화말벗 사업을 전개하려 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화기법, 노인상담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는 분이면 더 고맙겠습니다. (문의 : 02.741-4696)

## 공감대화의 습(習)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한자 습(習)은 새가 수없이 날갯짓을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날갯짓으로 몸에 배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고와 행동도 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고, 사회도 이런 습이 모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워 자연스레 습이 됩니다. 그리고 습은 업(業)을 만듭니다.

유치원 아이가 엄마와 시장을 갔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시장을 구경했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사준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세상은 핫도그 한 개로 가득 찼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뭐하고 있는 거야? 차오잖아!’ 라고 하며 등을 때렸습니다. ‘아파…….’

아이가 핫도그를 베어 물고 즐기면서 걷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이때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3가지 경우의 말을 적어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오래전 인터넷에서 영어 강사가 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강사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보았던 일이었습니다. 주택 앞에서 세

발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비스듬한 길을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차가 오고 있었지요. 아이의 엄마는 놀라서 뛰어가 아이를 번쩍 안았답니다. 많이 놀란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는,

‘아...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바람을 정확히 말했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자랐겠구나 생각하며 무척 부러웠습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책을 통해 폭력과 처벌을 반대합니다. 폭력과 처벌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 방법이며, 습이 되어 다시 폭력과 처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도로 들어가 위험해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보호

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그 의도는 사람이 다치거나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차도의 아이를 세계 끌어당기거나 미는 경우에도 ‘바람’ 즉, ‘보호, 안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말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평가,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핫도그를 먹던 유치원 아이의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엄마들은 화를 내며, 상대의 행동을 나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습이 다시 습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느낌은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이고, 바람은 아이의 안전과 차도로 들어간 행동이 위험하다고 교육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바람을 말하는 것이 공감대화입니다.

아이를 때리지 말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위험해서 잡아당겼어, 보호해야 했

거든. 엄마 놀랐는데 너도 놀랐지?’

‘네가 차도에 있어서 놀랐어. 안전하게 엄마 따라 걸을래?’

‘놀랐지? 핫도그 먹느라 차도로 가는 줄 몰랐구나? 맛있게 먹으면 서도 차는 항상 조심해야 해. 이해되니?’

라고 하십시오. 질문형 대화는 IQ와 EQ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말이 부모의 말과 같아 놀란 때가 있으셨지요? 때로는 자녀의 말에서 내가 했던 문장과 억양을 들으며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습이 나일 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세대이고, 사회입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상처를 주는지, 감동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습대로 내뱉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감동을 주는 대화,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대화를 위해서 공감대화의 방법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봄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봄 날 오후에는 요란한 봄바람이 불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봄바람이 나무와 풀들이 마구 흔들어 기지개를 켜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기지개 크게 켜시고 이 봄 날 공감대화의 습을 하나씩만 들여보시겠어요?

## 월간 ‘맑고 향기롭게’ 구독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행하여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등에 꾸준히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4월 결연 대상자 - 김철수(가명)

### 부부의 하루

김철수(가명) 님의 아내 이영희(가명) 님은 온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등창이 생기지 않도록 씻은 수건으로 온몸을 꼼꼼히 닦고 주무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간단히 세수를 하고, 몸이 불편해서 잘 씻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죽을 만들어 아침을 해결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한 유동식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으로 받는 돈 22만 원이 월 소득의 전부이기에 감히 유동식을 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는 날에는 남편을 업고 반지하에서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앙상히 뼈만 남은 남편이지만 중년의 여성

이 업기에는 매우 버겁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렇게 집 밖에 휠체어까지 이동해서 장애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정기적 검진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온 부부는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 후 간단한 청소 후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김철수 부부의 고된 하루는 끝이 납니다. 일반 가정에서 씻고 밥 먹는 간단한 일상생활이 이 부부에게는 살기 위한 하루하루의 몸부림입니다.

### 불행의 시작

김철수 님은 1980년 자신보다 2살 아래인 이영희 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근면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일과 가정

그 어떤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발을 주물러줄 정도로 자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거래처의 부도로 운영하던 양복판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님은 그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고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뇌병변 1급, 언어장애 1급,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도움 없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삶에 수선 관련 일을 하며 남편의 병 시중과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삶 속에 병들고 약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나갔고, 아들은 군대를 전역한 후 집을 나가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 삶에 희망을

김철수 부부는 장애수당 22만 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기저귀값으로 한 달에 약 1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생필품을 구매하면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내지 못해 240만 원의 월세가 밀려, 현재 거주하는 반지하 방을 언제 비워주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김철수 부부가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맑고향기롭게에서는 생계비 월 35만 원(월세 20만 원, 기저귀 1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스인 조르바

글 • 윤부혁(작가)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의 장편 소설로, 1946년 처음 출간되었다. 원제는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처음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의 주된 인물은 야생마같이 거칠면서도 신비로운 인물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노인이다. 그의 도움을 통해 책 밖에 모르는 책상물림 젊은 지식인이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인공인 ‘나’는 작품의 서술자로서 조르바라는 인물을 관찰하고 그의 면모를 전달한다. 이 작품은 1964년 그리스에서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었고 1968년에는 뮤지컬로도 소개되었는데, 법

정 스님의 서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크레타 섬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나 아테네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파리에서 앙리 베르그송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호메로스와 베르그송, 니체를 거쳐 불가(佛家)의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은 그는 자연인의 본원적인 생명력을 발산하는 작품들로 근대 그리스 문학에 크게 이바지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는 책과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인공은 문명에 갇힌 현대인을 대표한다. 작가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라는 인물의 의식과 생활을 ‘나와

같은 현대인과 대비하며 왜곡된 세상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잔차키스의 인생과 작품의 핵심에 있는 개념이자 그가 지향하던 궁극적인 가치인 ‘메토이소노’, 즉 “거룩하게 되기”를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변화이다. 이 개념에 따라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라고 하는 자유인을 소설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배경은 1940년대 초반의 그리스로 유럽은 전쟁 중이다. 이성적인 지식인인 나는 동포를 구하러 떠나는 친구에게서 책벌레라는 편지를 듣고 난 후,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 갈탄 광산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과 부대끼는 삶을 살기로 한다.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던 중,

나는 우연히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노인을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크레타에서 함께 갈탄 광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금욕적인 삶을 살던 나는 자유분방한 조르바와 지내면서 비로소 순간의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눈을 뜬다. 또한, 화려했던 과거에 사로잡힌 늙은 카바레 가수 오르탕스 부인, 맹수처럼 매력적인 과부 소멜리나, 고귀하나 영혼이 없는 그리스정교회 수도사 등과 얽히는 과정에서 참다운 구원은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점점 충만해지는 영혼과는 반대로 갈탄 광산 운영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조르바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철탑을 세우고 케이بل을 연결해서 목재를 운반하자고 새롭게 제안한다. 명목상의 사장인

나는 그것을 허락하고 크레타 섬의 주민들 앞에서 갈탄 광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케이블 개통식을 하지만 집단적 광기와 침묵이 공존하는 마을에서의 광산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둘은 빈털터리가 되지만, 조르바는 낙담하는 대신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마시며 시르타키 춤을 춘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몸소 실천하는 조르바로 인해, 나 역시 양고기를 뜯고 춤추는 여유 속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훗날 조르바가 죽은 뒤 그가 분신처럼 여겼던 산투르 악기를 남긴다는 내용의 편지가 내게 도착한다. 현실이라는 굴레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인 조르바를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의미를 깨닫고 감화된다.

조르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자신 안에 숨은 '나'를 찾는 과정, 타인의 자유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바로 자유에 다름 아니다. 이를 실현하는 조르바는 진정한 자유 의지의 소유자다. 사실주의와 시적 정서가 공존하는 이 작품에서 조르바는 지식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을 찾는다. 이성이나 감성이냐를 택해야 할 때, 조르바는 본능에 힘입어 자신의 길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메시지에 있지 않다. 세기를 뛰어넘어 변치 않는 인간 진리를 그린 이 작품에서 정반대 인물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중첩되어 흘러간다. 이성적 행동과 본능적 행동, 고용주와 고용인, 젊은이

와 노인의 대비되는 삶이 그것이다.

우리는 카잔차키스의 소설에서 현실과 밀접한 실제적인 가치를 발견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어떤 관계인가? '찰나의 반짝임'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대 그리스 문화의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누구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나는 주제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원불멸을 그리는 우리의 끝없는 갈증도 우리가 영원불멸한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짧은 기간에 우리가 어떤 불멸의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고 작가는 말한다.

역설적이지만, 자유를 노래한 이 작품은 그리스가 독일 나치군의 지배를 받던 1943년에 완성되

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아테네에서 출간되었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종교, 이념 혹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편을 갈라 전쟁을 벌인 탓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이때 조르바의 이야기가 발표되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유럽은 물론이고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까지 번역되었고 카잔차키스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도덕이나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직 조르바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책의 주인공이 '뱃다'를 넘어서는 순간 '뱃다'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조르바 이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에야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수탉과 독수리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 높은 담  
장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내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꼬끼오~~~~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눈 깜짝할 사  
이에 담장 위의 수탉을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 영원한 패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 이 달의 명언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 나폴레옹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 봉축 법요식

- 5월 3일(수) 오전 11시 / 극락전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길상 음악회'

- 5월 3일(수) 오후 7시 / 길상사 프락
- 출연진 : 안치환 밴드, 박창근 밴드, 시즈오브소울

#### 연등 모연

-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법당등, 도량등)을 접수 받습니다.
- 문의, 접수 :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

## 일요특강 - 나의 삶, 나의 길

- 4월 23일(넷째 일요일) 강연회 -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42대 국방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등 고질적인 비리 문제가 안 나온 '클린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 당시 여야가 함께 인정했던 청백리 군인 이었습니다.

군 생활 당시 야전지휘관, 육군사관학교 교수, 수방사령관, 합참의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사병이 전역하면 회식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렴과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거짓말을 싫어하며, 공사(公私)가 분명한 원칙주의자이며 공무(公務)에는 냉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일)에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님을 초청하여 청백리 군인으로 써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넷째 일요일 또는 다섯째 일요일에는 일요가족법회를 대신하여 일요특강(오전 11시 /설법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1. 일정 : 4월~7월, 9월~11월 - 둘째 토요일

2. 예정지(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월 8일 : 대구 동구 능천산-옷골마을(경주 최씨 집성촌), 도동 측백나무숲
- 5월 13일 : 경북 의성군 수정사, 경덕왕릉, 빙혈-산운마을(영천 이씨 집성촌)
- 6월 10일 :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웅천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7월 8일 : 전북 고창군 선운사, 왕버들 숲, 고창 고인돌군-남창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3.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2명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우천 예상시 우산 준비)
- 참가비 안내 :
  - 일반참가자(비회원) : 45,000원
  - 할인 혜택(맑고향기롭게 후원회원&정기 봉사자, 길상사 신행단체회원, 길상사 신도 증 발급자) : 35,000원
  - 점심식사 포함
 (시골 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식사를 탐방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5. 문의 및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기원정사에 계실 때 국왕 등 많은 사람들이 등 공양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은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모처럼 부처님을 뵈게 되었는데 아무 것도 공양할 것이 없구나"라고 한탄하며, 가난하여 아무 것도 공양을 할 수 없어 온종일 먹지도 않고 구걸하여 겨우 한 톨의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키게 주인은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두배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기름을 사서 등을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사자 아난은 등불 때문에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정이 되어 등불을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등은 모두 켜는데, 아난은 입으로 바람내어 난타의 등을 끄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밝아져 새벽녘까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와 지극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아난아. 그 등불은 한 가난한 여인이 간절한 정성으로 켜 것이어서 너의 힘으로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지금은 비록 가난한 모습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수미등광여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려 '빈녀일등(貧女一燈)' 또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만 등보다 빈자의

한 등이 낫다'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

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후원해주신 동참금 전액은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반찬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계좌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이며 입금처는 '결식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맑고향기롭게'입니다.

## 왕위를 사양하는 형제

옛날에 십사라는 왕이 네 사람의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다. 첫째 부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마라 했는데, 라마는 뛰어난 용기를 지닌 데다 힘이 장사여서 아무도 당해 낼 이가 없었다. 둘째 부인도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을 라만이라 했다. 셋째 부인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어 이름을 바라타라 불렀고, 넷째 부인의 아들은 멸원악滅怨惡이라 했다.

왕은 네 부인 가운데 셋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고 귀여워했다. 왕은 어느 날 셋째 부인에게 속삭였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줄지라도 아깝지 않겠소. 그러니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다음 소원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언약했다.

그 뒤 왕은 중병에 걸려 매우 위독해졌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 라마를 자기 대신 왕으로 삼고, 머리에 천관天冠을 씌워 위엄과 법도를 왕의 법과 같이 했다.

셋째 부인은 왕을 간호하다가 병이 조금 나아지는 걸 보고 자신의 지극 정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라마 태자의 왕위 계승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 왕에게 전날의 소원을 말했다.

“이제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컨대, 라마를 폐하고 우리 아들 바라타를 왕위에 오르게 하소서”

왕은 이 말을 듣자 마치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그것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제 와서 큰아들을 폐하자니 이미 왕으로 세운 터요, 그대로 두자니 전날의 언약을 저버려야 할 지경이었다. 십사왕은 젊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다. 또 왕의 법에는 두말이 있을 수 없고, 먼저 한 말을 먼저 지키는 것이 그 도리였다. 왕은 사랑하는 셋째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라마를 왕위에서 폐하고, 그 의복과 천관을 벗겼다. 그때 둘째 아들 라만은 분개해 폐위된 형에게 말했다.

“형님은 뛰어난 용기와 힘이 있으면서 왜 이런 치욕을 당하십니까?” 형은 대답했다.

“부왕의 뜻을 어기면 불효가 된다. 그리고 셋째 어머니가 우리를 낳지는 않았지만 부왕이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니 우리 어머

니나 다름이 없다. 동생 바라타는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해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는데, 지금 내가 폭력으로써 부모와 동생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라만은 이와 같은 형의 말을 듣고서야 잠자코 있었다.

이때 십사왕은 첫째와 둘째 왕자를 나라 밖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보내면서 열두 해가 지난 뒤에야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일렀다. 라마 형제는 부왕의 명을 받들어 조금의 원한도 없이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바라타 왕자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 곧 돌아오게 한 후 왕위에 오르도록 했다. 바라타는 예전부터 두 형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공경하던 사이였는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왕이 세

상을 떠나 버린 뒤였다. 그는 이런 일이 모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모를 꾸짖었다.

“어머님은 어째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합니까?”

그리고 큰 어머니를 그전보다 훨씬 더 공경했다.

바라타는 곧 군사를 이끌고 두 형이 머물고 있는 산속으로 달려갔다. 멀리 형들이 보이자 군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형들 앞으로 걸어갔다.

바라타가 오는 것을 보고 라만이 형에게 말했다.

“형님은 전에 항상 우리 동생 바라타는 의리가 있고 겸손하고 공손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을 보니 우리 형제를 죽이려는 모양입니다.”

형이 바라타에게 말했다.  
“동생은 왜 군사를 거느리고 왔

는가?”

그러자 바라타가 형에게 말했다.  
“길에서 혹시 도적 떼를 만날까 두려워 군사를 데리고 왔을 뿐이며,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형님은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맡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형이 대답했다.

“우리는 일찍이 부왕의 명을 받들어 이곳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만일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자식 된 도리가 아닐뿐더러 부모님에게 불효가 될 것이다.”

바라타는 몇 번이고 간청했지만 형의 뜻은 갈수록 굳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라타는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형이 신던 가축신을 얻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새로 왕위에 오른 바라타는, 그 가축신을 왕좌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기를 마치 형을 대하듯 했다. 그리고 자주 그 산으로 사신을 보내어 형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했지만, 그때마다 형들은 부왕의 뜻을 어길 수 없다면서 그 청을 거절했다.

그 뒤에도 바라타는 한결같이 자주 사신을 보내어 형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청했다. 마침내 형은 바라타 왕이 신발 공경하기를 형 대하듯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동생의 지극한 정에 마음이 움직여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라타 왕은 왕위를 사양해 형에게 돌렸다. 그러나 형도 사양했다.

“부왕께서 동생에게 주셨으니, 나는 받을 수 없다.”

동생도 사양했다.  
“형님은 만아들입니다. 부왕의 위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형님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형이 다시 왕위를 올랐다.

그들은 형제끼리 우의가 돈독하고 화목했으므로 그 덕이 나라 안에 널리 펼쳐져, 백성들끼리도 서로 받들어 섬기면서 효도하고 화목했다. 인심이 좋고 두터우니 비바람도 순조로워 나라 안은 가는 데마다 오곡이 풍성하고 질병이 없어 태평성세를 노래했다.

### 부처님오신날과 함께하는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자원 봉사자 모집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길상사 방문객 및 여러 불자님을 위한 불거리로 친환경 체험마당, 무소유 장터(녹색나눔장터), 먹거리 장터,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맑고향기롭게를 홍보하고, 길상사를 지역 시민 불교문화 공간으로 포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와 장터에 동참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741-4696)

# 돌아나는 꽃망울의 설레임

글 • 정흥기(회원, 시인)

창밖 정원엔 아직도 바람이 차다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수줍은 듯이 맺힌다  
꽃망울은 날마다 소담스레 지는데  
막내딸 찹꼭지같이, 간지럽게 예쁘다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잠을 깨면 먼저 꽃망울을 본다  
한겨울 온갖 물감 준비했다가  
자기의 모습대로 망울져 있다

겨우내 인고의 세월을 견뎌  
그려내는 자신의 모습이다  
아니, 애절한 몸부림이다

내일이면 얼마나 더 몽실해질까?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신비스런 새벽을 연다

정흥기 • 시인, 수필가, 철학박사, 한얼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회원, 저서 - 정기 룡장군 전기, 대마도를 반환하라 등 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2017년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사업, 재무 보고 홈페이지 공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는 2016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지난 3월 3일(금) 개최하여, 중앙모임을 비롯한 각 지역 모임의 2016년 회계 감사 보고, 사업 결과, 결산 및 2017년 사업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재무 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모임 홈페이지 < 참여.후원 > - <사업.재무보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앱(APP)으로 만나보세요

법정넷 홈페이지(법정스님 추모 사이트)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합한 홈페이지를 간편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과 앱(APP)을 구축하여 오픈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께서는 구글 play스토어에서 '맑고 향기롭게'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을 포함해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모바일 버전을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가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플 앱 스토어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차후 사용량을 검토해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공지 및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교 1~3학년 재학생(50명 내외)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7년 4월 5일(수)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7년 4월 14일(금) 길상사 설법전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부처님오신날 '무소유 장터' 개최 예정

맑고 향기롭게에서 진행하던 '녹색나눔장터'를 상설매장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로 활용하는 대신, 특별하고 의미있는 '무소유 장터'를 기획하려 합니다. 우선 5월 3일(수) 부처님오신날 길상사 뜨락에서 녹색나눔장터의 일환으로 특별한 '무소유 장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과 신도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소장품(애장품, 불교물품 등)을 후원해주시거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여 수익금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길상사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장터를 진행하려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소장품 후원 또는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반찬 나눔은 매주 500여 가구에 밑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

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 주신 용품은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향기롭게 강연회 : 4월 23일(일) 나의 삶, 나의 길 - 김태영 전국방장관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6,7,20,21,27,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3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3,10,17,24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5일)/오후 1시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토요일(15,22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 (4,11,18,25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달 매주 수요일(5,12,19,26일)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회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식(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사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5회차 기도가 3월 16일(목)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4월 1일(토) 오후 7시~9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하절기 동안 기도가 7시에 시작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점등식

- 일시 : 4월 1일(토) 오후 6시 45분 예정
- 장소 : 극락전 앞마당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4월 8일(토) 오후 8시 ~ 4월 9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4월 1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4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4월 26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가 안내

자비의 등불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4월 29일(토)
- 장소 : 동국대 및 종로(길상사 집결지 차후 홈페이지)

### 저녁예불 시간 변경 안내

4월 1일부터 저녁예불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오식

- 일시 : 5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극락전
-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길상 음악회'

- 일시: 5월 3일(수) 오후 7시
- 출연: 안치환 밴드, 박창근 밴드, 시즌오브소울
- 장소: 길상사 트락

##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1일(토)	저녁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8일(토)	저녁 8시	극락전
보름기도	4월 11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14일(금)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4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4월 26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찬알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 불기 2561년(2017)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못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중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극락전 1년 연등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10만원

### 도량 연등

- 가족등 : 3만원
- 영가등 : 3만원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길상사 소식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 나누는 기쁨

봉사활동과 장학금을 한번에!!



## 모집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동아리 팀

## 팀 구성

5~10명(최소 5명)

※ 학교, 전공, 성별, 나이 무관, 학교연합 가능

## 봉사자 혜택

- 최대 200만원 봉사활동비 지원
- 우수봉사팀 장학금 지원(인당 최대 50만원)
-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 활동(예)

- 노인·미혼모·아동·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 에너지 절약, 나무심기 등의 자연보호 사업
-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 일정

- 접수기간 : 3월 6일 ~ 4월 14일
  - 합격팀 발표 : 4월 19일
  - 합격 팀 OT : 4월 29일
  - 봉사활동 수행 : 5월 ~ 10월
    - 최소 6회, 30시간 수행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활동 1회 참여(의무)
  - 결과보고회 : 11월 24일
  - 장학금 전달식 : 12월 14일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clean94@hanmail.net "나누는 기쁨(팀이름)"으로 전송
- 상세한 모집 진행 및 서식 다운로드는 홈페이지  
www.clean94.or.kr

## 문의처

02-741-4696 (사)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